

‘새싹불자...’ 캠페인
 포교원·本社 공동 전개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를 주제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2007년 1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현대불교신문 2개 지면을 ‘어린이·청소년’ 페이지로 고정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불교정보와 신생활을 소개한다.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립학교 각 학급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개최 등의 부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13면

‘종단 자정’ 더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승·재가 9개 단체 연석회의... 공청회 등 운동전개 방침

소책자 마을 후원금 횡령 사건(1995년),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1997년), 조계사 공금횡령 사건(1999년),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2001년), 화엄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2002년),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2005년),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발

생한 대형 비리 사건들이다. 개별 사찰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면 사실상 매년 단위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공주 마곡사가 검찰에 의해 야간입수수색 당했으며, 100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 흥천사 토지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

발생해 불교계 내외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종단 주요 소임자 및 고위직 주지 등 소위 고위층이어서, 종단 내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비승가적 행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종단 자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원이 최근 각종 사건에 대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단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자정 강화 대책 등 총무원 차원의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위기관리능력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중앙종회 또한 마곡사 사건에 대해 자숙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는 커녕 ‘법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법당국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뒀다. 종단의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호계원도 서울 보광사 폭력 사건에 대해 문서견책 결정을 내리는 등 일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는 1월 14일 조계사 설립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자정 및 기구가 참여하는 ‘불교자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3개 단체와 더불어 조계종 중

양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포럼, 사찰생태연구소 등 9개 단체는 2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회의실에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었다.

단체들은 회의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는 상시로 열고, 연석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또 2월 초 재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 등 주요 종단 지도자를 방문해 종단 자정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2월 말 경에는 종단 자정 강화를 촉구하는 공청회(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광서 前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이번에는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등 주로 승가단체에서 움직임을 선도해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며 “재가단체도 이만큼 걸기 보다는 3~4개 단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 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빛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량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명(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더 큰 수행의 길로 떠나요

학사, 운문사, 청암사의 승가대학이 졸업식을 가졌다. 사진은 삼선승가대학의 12명의 학인 스님이 졸업식이 끝난 후 후배 스님들의 축하 속에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전통 강원이 졸업 시즌을 맞은 가운데 지난 2월 2일 전국 유일의 통학 비구니승가대학인 서울 삼선승가대학을 비롯해 등

글·사진=박재환 기자

I Love Buddha / 마음 속 밝은 빛
 용정은(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진년보이차·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월수입이라든가 하루 일과 등 사생활을 묻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업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힘찬 인사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료신문을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좋은 하루 되세요’...당신의 친절지수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사는 세 가지다. 월요일 아침에는 “좋은 한 주 되세요”를 외치며 신문을 나눠준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좋은 주말 되세요”를 외친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월수입이라든가 하루 일과 등 사생활을 묻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업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힘찬 인사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료신문을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사는 세 가지다. 월요일 아침에는 “좋은 한 주 되세요”를 외치며 신문을 나눠준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좋은 주말 되세요”를 외친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월수입이라든가 하루 일과 등 사생활을 묻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업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힘찬 인사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료신문을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사는 세 가지다. 월요일 아침에는 “좋은 한 주 되세요”를 외치며 신문을 나눠준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좋은 주말 되세요”를 외친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월수입이라든가 하루 일과 등 사생활을 묻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업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힘찬 인사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료신문을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사는 세 가지다. 월요일 아침에는 “좋은 한 주 되세요”를 외치며 신문을 나눠준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좋은 주말 되세요”를 외친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이천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